

미래를 향한 소망

자연의 재난에 못지 않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
건설의 재난이다. 낡은 것은 헐어버리고 새 것을 건설하려면 반
시 희생과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아폴로 13호는 달 정복을 단념
고 지구에 돌아오게 되었다. 엄청난 댓가를 치루는 과학적 시행
오인 것이다.

지난번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몰각한
자나 공무원을 비난하는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있다. 사람의 생
을 총칼로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어두운 업자들의 날림
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서 거듭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몰각했다는 관련자의 몰지각
행위를 규탄하는 일이다. 더 근본적인 각오에서 교훈을 받게 된

봄철이면 여기저기에서 집짓기에 바쁘다. 시멘트 블록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땅을 파고 얇은 기초 위에다가 당장 부스러질 듯한 블
록을 쌓아 올리는 광경을 유심히 지켜 보게 된다. 어쩐지 허술하고
졸속주의로 하는 건축만 같다. 왜 저다지도 서둘러야 하는가? 새로
건설된 경인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해 본다. 벌써 누더기 기운듯이
떨어진 곳이 많아서 차가 제대로 속력을 낼 수 없게 되었다. 빨리
건설해서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건설의 빠른 템포를 보여 주
고 싶은 심정에서 서두르는지 모른다. 그 졸속주의가 가져다 주는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줄속주의보다도 우리가 살림을 꾸려가는 태도에서 엿보이는 찰나주의, 걸치레가 더욱 근본 문제인 것 같다. 집을 짓는다고 보다 집 같은 것을 짓고, 다리를 세운다고 보다 다리 같은 것, 그것도 걸으로 보아서 회한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온통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장구한 앞날을 생각해서 심고 키워야 할 나무는 심지어 앞으로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인조화가 범람하게 된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에 뻗는 <손길>이 아쉽다. 서울의 거리에는 사람이 득실거리고, 뻣뻣한 건물이 즐비해도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 길에 깔린 돌 하나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것은 버림을 받은 길이 되고 만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산과 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망을 잃은 백성은 생활 주변에 세심한 손길을 뻗으려고 하지 않는다. 장구한 미래를 내다보고 돌 하나, 블록 하나를 차욱차욱 쌓아 올려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찰나를 장식하는 걸치레를 즐긴다.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 짓는 흉내를 내고 사는 것이다.

근대화의 그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 오는 것은 우리의 고질적인 찰나주의와 걸치레, 형식주의가 그대로 새 분장을 하고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구태어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다만 자질구레한 걸치레는 그만두고 알맹이 있는 건설, 집 한 채 지어도 다부진 건축을 할 줄 아는 생활 품

길러 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허술한 건축을 해서 남에게 보
 래만 급급한 걸치레는 아예 없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것은 건축업자나 정부 관리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민의 공동 책임이다. 하나의 국민 기풍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초가 삼간 것더라도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지어
 겠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증거
 이다. 이 나라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소망에 사
 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여서 키워나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러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살았어도 산 송장이요, 산 송
 지은 것은 역시 죽음을 부르는 와우 아파트 같은 날림 공사가
 피동피동 살찐 시공업자의 얼굴은 벌써 인간성을 저버린 산
 의 얼굴이다. 현재의 찰나적인 이익과 걸치레를 해 놓고 사람
 명을 희생시킨 산 송장이 변모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은으로 와우산 기슭을 해골의 골짜기로 만들어 놓아버린 것이다.